무안 기업도시 7년만에 문 닫는다

법인 임시주총, 채권변제·배분금액 확정

청산절차 돌입 속 손실 책임 소송 가능성

무안기업도시가 7년여 만에 사실상 무산되면서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무안군은 무안기업도시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인 한중미래도시개발(주)이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법인 채권 변제금과 배분 금액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주총에서는 법인의 채권변제금과 1차 잔여재산 배분 금액을 확정짓고 최종 결산보고를 의결해 잔여재산 배분만을 남겨뒀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손실에 대한 법적 다툼과 법인이 청산되면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미래도시개발(주)의 주요 주주는 경암물산(11.9%), 두산중공업(10.9%), 무안군(9.1%), 전남개발공사(5%), 낙원건설(3.4%), 벽산건설(3.4%), 대선건설(3.4%), 등이다.

출자한 주식의 액면가는 총 430억원이지만 법인이 지출한 각종 비용과 채무액 등을 제외한 금액은 207억여원으로 다음달 까지 주주 청구를 받아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은 한중미래도시개발㈜이 지난 2월 주주총회의 청산 결의 후 법인의 인적쇄신을 마무리하고 정상화를 꾀했으나 중국 투자자의 청산의지를 결국 막지 못했다.

무안군은 잔여재산 배분이 이루어지기 전 사업참여 의사를 타진하는 기업을 상대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군은 2009년 두산중공업을 선도기업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법인이 중도 청산될 경우 40억원 범위 내에서 경암물산 우회 출자금(52억원)의 손실을 대신 지급해주기로 무안군의회 승인을 얻어 보증을 선바 있다.

보증 내용엔 두산중공업이 직접 출자하거나 PF자금이 형성되면 무안군의 보증 책임이 해소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PF자금은 없지만 두산중공업이 직접 출자 했느냐가 법적 다툼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은 두산이 농협 지분 47억원 상당을 인수했기 때문에 직접 출자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두산측은 경암물산 우회출자금을 직접 출자로 전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무안 기업도시는 무안읍과 무안국제공항 인접지역 5㎢ 부지에 206만여㎡ 규모의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도서지역 식수공급 총력 K-water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신송운)와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들이 진도군 조도면 등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에 보낼 식수를 선적하고 있다. 지역본부는 도서지역 10개마을 등지에 병물 5000병을 지원하고, 비상급수 차량을 이용해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K-water 전남지역본부 제공〉

독일계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사

여수에 고기능 특수 플라스틱 공장

900억 투입 '울트라손 폴리에테르설폰' 생산공장 기공

독일계 글로벌 화학기업인 바스프(BASF)사가 여수에 고기능 특수 플라스틱 공장을 세운다.

한국바스프는 지난달 29일 바스프 여수공장내에서 고기능 열가소성 플라스틱인 '울트라손(Ultrason) 폴리에테르설폰'(PESU) 생산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김충석 여수시장, 코트라 한기원 단장, 바스프사 알버트 호이저 아시아·태평양 사장, 볼프강 합케 기능성 폴리머 사업부문 사장, 신우성 한국바스프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바스프는 고기능 플라스틱 공장 건설에 800억~900억원을 투입, 오는 2014년부터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연간 6000t의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 5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트라손'은 전자·자동차·항공산업·의료기기 등에 널리 사용되는 특수 플라스틱으로, 현재 바스프 본사가 위치한 독일 루드빅스하펜 지역에서만 생산되고 있다.

여수시는 이번 바스프사 공장신설이 수입대체 효과와 직·간접적인 고용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내 연관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전국 RPC 브랜드쌀 평가

보성 '녹차미인 쌀' 1위

최근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전국 RPC(미곡 종합처리장)의 브랜드쌀 평가에서 보성군 농협 통합RPC의 '녹차미인 보성쌀'이 1위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농협에서 생산한 쌀브랜드 155개 가운데 판매액이 10억원 이상인 브랜드 쌀의 품종·단백질 함량·밥맛 등 11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보성농협 문병완 조합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브랜드 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강진의료원 서남권 거점 산부인과로

道, 농어촌 시범사업 선정…12억 지원 분만센터 운영

강진의료원이 서남권 거점 산부인과로 육성된다.

전남도는 "농·어촌 산부인과 분만 취약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강진의료원이 사업비 12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분만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지역 민간 종합병원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강진 의료원은 지난달 29일 산부인과 분만 취약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박영걸 강진 의료원장을 비롯해 김동국 장흥 종합병원장, 김동국 해남 종합병원 이사장, 전이양 완도 대성병원장, 전남도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전남 서남부지역에는 분만 산부인과 병원이 없어 산모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강진 의료원이 지난 2011년 10월 산부인과를 개설, 현재까지 77명의 신생아의 분만을 돕는 등 지역내 거점 산부인과병원으로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박영걸 강진 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은 물론 강진 의료원이 정부지원 거점 산부인과병원으로 자리잡는데 큰 힘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산강 자전거길 동호인 인기

4대강 구간별 종주 인증자 1만명 돌파

영산강 등 4대 강변 자전거길이 자전거 동호인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K-water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시행한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인증제' 구간별 종주 인증자가 100일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인증코스는 ▲구간별 종주 ▲국토종주 ▲4대강 종주로 구성돼 있다. '구간 종주' 후 인증등록을 하면 인증 스티커를 지급하고, '국토종주'와 '4대강 종주'를 하면 인증 스티커〈사진〉와 기념메달을 지급하고 인증서를 발급해 준다.

'구간별 종주' 인원은 27일 현재 영산강 943명을 비롯해 한강 2406명·금강 1365명·낙동강 1871명·남한강 2111명·새재길 1582명이다.

K-water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자전거길 인증제도 시행 이후 영산강을 비롯해 '4대강 자전거 길'을 즐기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도시 학생 시골생활 체험 기회

도, 전국 첫 '농촌유학 지원센터' 개소

전담자 배치…7월부터 팸 투어·설명회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농촌유학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전북도는 지난달 29일 도청 3층 교육법무과에 '전북 농촌유학 지원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농촌유학은 도시 학생들이 시골학교로 6개월 이상 전학, 시골생활을 체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센터는 농촌 유학 민간 운영자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홍보, 상담, 정보 제공, 유학생 유치 활동 등을 한다. 전담자가 배치됐고 원스톱 상담전화(063-280-3388)도 개설됐다.

센터는 7월부터 도시 초·중학생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는 7월과 8월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교육청을 상대로 팸투어 및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농촌유학 마케팅에 돌입할 계획이다. 10월에는 '농촌유학 박람회'도 열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교육청과 함께 농·산촌 여건과 환경에 맞춰 다양한 대안교육 모델을 세우면서 유학생을 전담하는 마을교사들도 육성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도는 올해 귀농·귀촌자 2500가구 유치를 목표로 최근 서울 광화문 전북 투자유치사무소에 '귀농·귀촌 지원 서울센터'를 열었다.

김완주 도지사는 센터 현판식에서 "농촌유학은 도시 아이들의 정서를 위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황폐화하는 시골학교와 농촌마을을 되살리는 최적의 대안이자 희망 프로젝트"라며 "이제는 외국유학이 아닌 전북도로 농촌유학을 선택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 연근해 어획량 급감

고수온 여파 활어·새우 어군 형성 안돼

광어·우럭·도미 위판량도 반토막…어민들 울상

최근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1일 군산수협에 따르면 가뭄으로 수온이 높아지는 바람에 군산 연근해에 어군이 형성이 안 돼 활어와 새우 등의 어획량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군산수협에서 위판한 수산물은 564t으로, 지난해보다 40%나 감소했다. 갯벌에서 서식하는 조개 역시 예년보다 크기가 작은데다 일부는 폐사하기도 했다.

예년 이맘때면 가장 많이 잡히는 광어·우럭·도미의 위판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바닷물 온도에 민감한 새우의 어획량은 3분의 1로 줄었다. 반면 어부들이 쳐 놓은 그물에는 해파리만 가득한 실정이다.

이러한 어획량의 감소는 빗물이 장기간 유입되지 않은 탓에 육지 인근의 바닷가에 플랑크톤이 크게 줄고, 수온까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산수협 해망동 위판장 김형문 위판장장은 "지난해 이맘때 새우의 하루 위판량이 38t(27억원)인데 반해 올해는 13t(9억원)으로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면서 "새우의 어획량이 줄면서 거래되는 새우값은 뛰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알제리 공무원 순창 절임류 생산시설 견학 알제리 중소기업 담당 공무원들이 최근 순창군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견학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어업인 후계자 산업기능요원 모집

전북도 수산기술硏·고창군, 오는 5일까지

고창군과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오는 5일까지 2013년도 '어업인 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모집한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및 보충역자 중 어촌정착 의욕이 강한 사람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2012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2013 어업인후계자로 선정 예정자) 중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12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가 해당된다.

지원 희망자는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자원조성과로 신청서와 영어사업 계획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면 영어기술 및 경영기법 습득을 위한 교육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지는 만큼 대상자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단신

'SELF Asia 2012' 전주 한옥마을 개최

'전북방문의 해'를 맞은 전북도는 사회적기업 행사로서는 아시아 처음이자 최대 규모의 국제 컨퍼런스인 'SELF Asia 2012'(Social Enterprise Leader's Forum)를 2~5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정책입안자, 중간 지원기관, 청년, 학계, NGO, 지방정부 등15개국 300명이 참석한다. 주요 의제는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구축, 지역재생,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시아연대와 사회적기업의 역할 등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새만금 군산시장기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

'제3회 새만금 군산시장기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가 오는 7~9일 3일간 군산에서 열린다.

군산 시민체육회 주최·군산시 통합야구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광주 광산구청· 영암군청·화순군청·진도군청·광주 남부경찰서·목포 해양경찰서 등을 비롯해 전국 30개 공무원 야구팀이 출전해 열띤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월명 야구장·군산 금강야구장·군산상고 등에서 열리며, 결승전은 7월 9일 오후 4시 월명 야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김제경찰 5대 폭력사범 척결 나서

김제경찰서가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주취폭력(酒暴)·조직폭력·갈취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등5대 폭력사범 척결에 발벗고 나섰다.

김제경찰은 이상주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5대 폭력사범TF팀'을 편성해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상주 서장은 "신뢰받는 경찰상 확립을 위해 1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가 제거될 때까지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고창농협 가뭄지역 양수기 23대 전달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와 고창농협은 최근 농업용 양수기 23대를 구입해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가에 전달했다.

양수기는 ▲고창읍 8대 ▲고수면 8대 ▲부안면 7대 등 농작물 피해가 가장 큰 마을농가에 각각 지원됐다.

김이종 고창읍장은 "현재 가뭄대책 상황반을 운영해 행정과 유관기관이 합심, 가뭄해소 및 피해농가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